

체코·짐바브웨에 전주한지 알린다

전주문화재단, 짐바브웨 블라와요서 한지공예체험 부스 운영
21~26일 체코 프라하 한지 홍보 해외전 ‘Feel the HANJI’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전주 전통 한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체코와 짐바브웨를 잇달아 방문한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8~15일 짐바브웨 블라와요를 방문한 뒤, 21~26일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전주한지 홍보전을 개최한다.
먼저 짐바브웨 한국문화축제에 참석해 12~13일 양일간 한지공예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현지에서는 전주한지 부채와 한지민화 액

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어 주체코대한국대사관과 협력해 22일에는 프라하 조관공전(Lord Mayor's Lounge)에서 전주한지 홍보 해외전시 ‘Feel the HANJI’를 연다.
이 전시는 대한민국 국경일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 고유의 종이인 한지의 역사와 제작 과정, 그리고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 한지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색지·문양지 전시와 함께 한지 제작 시연 영상, 영문 브로셔도 제공된다.
행사에서는 현지 주요 인사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한지 워크숍도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체코 문화예술계 인사, 주재 외교관 등 500여 명이 초청돼 한지를 매개로 한국의 예술성과 문화를 접하고, 양국 간 협력을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한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종이로, 전주가 본고장이자 중심지”라며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전주한지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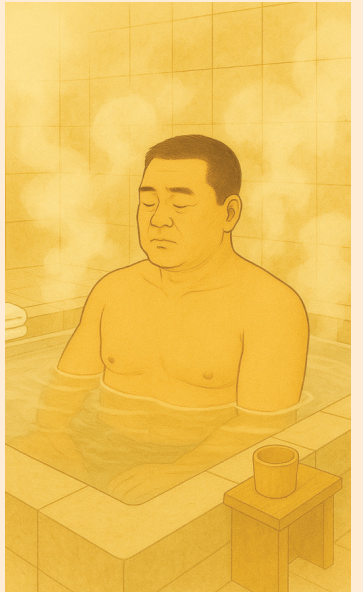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22)

살쥔 켜라

- 오 상 근 -

루이지가 동식을 보며 또 미소를 지었다. 바라, 이런 차를 네가 운전할 수 있겠냐? 하는 표정으로.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차를 운전해서 다녔을까. 루이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이 한층 부피를 키웠다.
봉고차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 허름한 집 앞에 정차했다. 루이지는 스스럼없이 대문을 밀고 들어가 어르신을 부르며 현관 미닫이문을 열었고 마루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다.
병약해 보이는 노인이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키려 했다. 루이지가 동식에게 열른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동식은 뛰어 들어가 몸을 일으키려는 노인을 부축했다.
루이지는 노인에게 병원에 가는 날이라고 말했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함인지 고마움인지를 담은 미소를 수녀에게 보냈다. 동식은 노인을 안아주고 밖으로 나와 봉고차에 태웠다.
“우리 같은 사람은 수녀님 없으면 못 산 당계. 얼마나 고마운 중 몰라. 이렇게 병원도 데려다 주고 말이어. 우리 마을 전사여, 천사.”
“같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동식은 저도 모르게 다리가 가지런히 모아졌다.
오늘은 봉사활동을 쉬는 날이다. 석정은 천으로 사무리를 갔다. 안 하던 노동일을 이틀 했더니 온몸이 노곤했다.
건달은 덩치가 생명이다. 덩치가 좋지 않으면 강패 생활도 중을 쳐야 한다. 교도소에서 두루준 운동을 했다. 물론 많이 먹기도 했다.
건달 선배나 후배들은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같은 식구 건달을 면회 온다. 면회 온 선배들은 수감 생활을 하는 후배들에게 꼭 빠지지 않고 당부하는 말이 있다.
‘살쥔 켜라.’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 왕창 먹어서 살을 찌워 몸 부피를 키우라는 말이다. 건달이 싸움을 잘 하려면 근육을 키워 상대방을 제압할 힘을 키워야지 왜 몸을 뚱뚱한 돼지로 만들라는 걸까.
건달에게 필요한 무기는 싸움을 잘 하는 전투용 근육과 싸움 스킬이 아니다. 거대한 돼지비계 덩어리로 상대를 압도하는 전시용 몸통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건달이라고 살만 찌우는 건 아니다. 근육을 열심히 만드는 놈들도 많다. 동식도 근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했다. 그러나 운동으로 만든 근육과 실전 노동



근육은 전혀 다르다. 아무리 운동으로 다져진 팔과 다리 근육이라 해도 실전 노동에 투입되면 거의 무용지물이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비틀고 꺾고 쑤고 움푹이 고 옆으로 놓고 뒤로 놓고 하는 실전 근육이 따로 있는 것이다.
온천에 몸을 푹 담고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명주가 떠올랐고 강 루이지 수녀가 생각났다. 이명주에게 약속했다. 느닷없이 던져버린 약속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청룡에 찾아가서 견해를 전해야 할 텐데 좀 막막하다. 오장태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건달 생활에서는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위계를 깨버리는 일이라 잘못하면 후배들에게까지 도태될 수 있다. 앞으로의 건달 생활에 아무래도 타격이 오지 않을까.
조직 생활을 접고 싶은 마음이 꿀떡 잡지만 당장 대책도 없이 그동안 다져온 건달 생활을 그만둔다는 건 쉽지 않다.
박창수는 아직 연락이 없다. 만나서 착수금을 준다고 했다. 착수금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죽여야 할 것이다.
내시 박창수가 허언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 생각해보고 싶은 때가 있다. 두려운 건가. 하지만 이 더럽고 추잡스런 양아치 생활을 접으려면 한 번의 고비는 넘겨야 한다.

전주의 가을밤, 색다르게 즐겨보자

내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서 '전주 달빛 한잔'

야간관광 특화 도시인 전주시가 고즈넉한 전주의 가을밤을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일반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주 달빛 한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대학이 개발한 특화메뉴를 기반으로 컨설팅에 참여한 지역 가맹업체와 전주옛촌막걸리 등이 참여해 전주의 음식문화와 전주 식재료를 활용해 개발한 안주와 함께 소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야간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달빛 한잔 프로그램에서는 다채로운 콘셉트의 버스킹 공연과 더불어 관람객이 함께하는 이벤트 등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된다.

또한 ESG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BI 재활용컵이 사용되고 지역의 일러스트 작가가 참여해 디자인한 전주를 상징하는 한옥·한복 지비츠 등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매력적인 전주 야간관광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절별 대표 콘텐츠와 상품 개발을 통해 전주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정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신항 정책관

일자리 창출 분야 대통령표창 수상

전북여성가족재단 신항 정책관(전 취업지원부장)이 여성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재단이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 연구와 현장 기반 사업 추진의 성과가 함께 인정받은 결과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다.

신항 정책관은 재단의 연구를 토대로 보내 여성 고용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제안·실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청년·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역 기반 돌봄·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등 전북 지역 여성들의 안정적인 취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수상은 신항 정책관 개인의 업적을 넘어, 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퍼포먼스 ‘옹알스 히스토리 쇼’, 26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난버벌 퍼포먼스 최강자 ‘옹알스 히스토리 쇼’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기존 4명 체제의 공연에서 옹알스 멤버 전원이 출연해 다채로워지면서 볼거리의 다양성이 추가 됐으며, 마술과 마임, 저글링이 합쳐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관람 할 수 있고, 멤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기와 장기를 공연에 녹여 화려하고 더욱 코믹하게 준비된 공연이다.

글로벌 코미디 팀 옹알스는 2007년 KBS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로 시작되어 25개국 52개 도시를 투어하며 페스티벌 등에서 최고평점을 받으며 한국의 코미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된다.

/김제=곽노태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경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빗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기에 따른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